

# 與 원내대표 경선 ‘초선 표심’이 가른다

### 전해철·김태년·정성호 각축... 초선 68명 ‘캐스팅 보트’ 전망 친문 그룹 표 분산도 변수... 후보들, 맨투맨 전략 세물이 치열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 경선에서 68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면서 광주·전남지역 당선인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회 선택을 염두에 둔 전략적 원내대표 지지가 예상됐지만 광주·전남지역 당선인의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에서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친문 그룹의 표 분산도 승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는 4선이 되는 김태년·정성호 의원과

3선이 되는 전해철 의원으로, 현재까지는 ‘3파전’ 양상이다.

전해철 의원은 28일 “협치를 통해 개혁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전 의원은 친문 주류 의원이며, 정 의원은 계파색이 얹은 비주류 의원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친문이면서 이해찬 대표와도 가까운 당권파이고,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투표권을 가진 당선인 163명 가운데 초선은 6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1.7%를 차지해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

선 이상 의원들의 경우 후보들과의 개인적 인연과 관계가 깊지만 초선 의원들은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총선 공전과 후보 심사 과정을 통해 많은 초선 당선인들이 당 주류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어 당 주류에게로 쏠림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당선인 캠프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 도움을 받은 원내대표 경선 주자가 있어 사실상 그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로 각 후보와 뚜렷한 공통분모가 적은 초선의 특성상 막판까지 표심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맨투맨’ 작전으로 초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월 15일 당선 확정 이후 광주·전남 당선인들에게 일부 원내대표 후보들이 축전 등을 보내는 등 물밑 세물이라도 치열하다.

또 세 후보는 개별적으로 초선 당선인들

에게 전화를 돌리며 원내대표 출마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도 나란히 나타나 눈도장을 찍었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다수를 차지하는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더미래는 진보·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이고, 민평연은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더미래와 민평연에는 각각 30여명의 현역 의원이 소속해 있고 초선 당선인도 영입 중이어서 이곳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친문 후보가 2명 나오면서 경선 전까지 끝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친문그룹의 표가 어떻게 분산될지도 관련 포인트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이들 후보 3명의 요청에 따라 각 후보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 “재논의시 100% 지급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다시(100% 지급과) 다

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5조원이 돌아올지 예산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강경화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

### “방한 원칙은 변함 없어”

강경화 외교부장은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은 (기업인 입국과 관련한) 개별 협의가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

하지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중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지는 것도 미국 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 상임위 가동... 정부안 의결 지원금 기부금 특별법도 의결

국회는 28일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속도를 냈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본회의(29일 오후 9시)를 하루 앞두고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위를 일제히 가동, 추경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차 추경에서의 ‘적자극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기를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했다.

예결위는 29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산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예산소위를 거쳐 29일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

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자방비 포함) 9조 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종인, 4개월 비대위원장 거부

### 통합당, 전국위서 가결 됐지만 무산 위기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28일 가결됐다.

통합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과반의 찬성으로 김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이 177명, 반대가 80명이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전국위를 통과한 임명안을 결재하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통합당은 이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발의, 이를 전국위에서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상임전국위 자체가 불발됐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즉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상정해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겠다는 취지

다. 통합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 출범하면서 차기 전대를 8월 31일까지 열어 세 지도부를 꾸리는 경과규정을 당헌 부칙에 뒀다.

이날 당헌 개정 무산으로 경과규정은 일단 유효하게 됐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대위가 당장 출범하더라도 임기는 약 4개월에 그친다.

반면,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이날 전국위 의결 결과, 즉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수락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